

대구지역 벤처기업의 입지와 비즈니스서비스 네트워크 특성

주미순* · 이철우**

The Characteristics of Location and Business-Services Networks of Venture Firms in Daegu Region

Ju, Meesoon* · Lee, Chulwoo**

요약 : 본 연구는 대구지역 벤처기업의 입지 및 비즈니스서비스 네트워크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대구지역 벤처기업들은 소프트웨어분야에서 연구개발투자자 특히·신기술 분야의 사업 유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기업체 근무 경력이 있는 고학력자들에 의해 1990년대 중반 이후 창업된 소규모 기업들이 다양한 성장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대구 지역 벤처기업들은 달서구와 북구의 일부 지역에 집중 분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업종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연구·대학과의 접근, 정보 획득 용이, 저렴한 용지 이용 등이 주요 입지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이들 기업들은 고객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고려하여 이전 여부를 결정한다. 벤처기업과 비즈니스서비스와의 네트워크 특성을 보면, 대구지역 벤처기업들이 이용하는 비즈니스서비스 업체수는 적은 편이지만, 그 중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부문의 서비스 업체수는 많은 편이다. 비즈니스서비스산업 중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연구 및 개발업, 사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 빈도가 높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이용 빈도는 낮다. 대구지역 벤처기업들이 이용하는 비즈니스서비스업체는 대구지역에 주로 분포하며, 기술 및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즈니스서비스를 이용한다.

주요어 : 대구지역, 벤처기업, 비즈니스서비스, 네트워크

Abstract :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location and business-services networks of venture firms in Daegu region. The regional venture firms are small scale and consist of mainly R&D investment and license·new-technology in the category of soft-ware. Since the mid-1990's the firms that were founded by people with higher education and career experience seek diverse growth strategies. those firms concentrate in some regions of dalseo-gu and buk-gu. There are a few difference by types of firm-business, but, on the whole, the principal location factors of venture firms are accessibility of research institute and university, easy information availability, and use of moderate land. In regard to networks with client firms, the venture firms determine whether to transfer. The result of the characteristics of networks between regional venture firms and business-service enterprises is as follows; the regional venture firms utilize small number of business-service enterprises and use mainly information processing and other computer operation related services and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In business-service be used by regional venture firms, the frequency of information processing and other computer operation related services, research and development, business support services is much, while the frequency of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is little. Business-service enterprises are distributed mostly in Daegu region and are used owing to lack of technology and knowledge.

Key Words : Daegu region, venture firm, business-services, networks

1. 머리말

오늘날 세계화와 지식기반경제사회로의 전환은 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지식기반경제사회는 지식과 기술혁신에 의해 산업경쟁력이 좌우되는 혁신의 시대이며 이로 인해 기업간·지역간·국가간의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다. 특히

세계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은 축소한 반면, 지역(region)이 가진 역할과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됨과 동시에 경제활동의 주요단위로 등장하고 있다(이철우, 2003). 이러한 가운데 신기술을 바탕으로 유연한 생산방식을 근간으로 하는 벤처산업은 기술혁신과 지식창출의 주체로써 지역경제의 변화를 주도하는 새로운 산업모형으로 부각되고 있다.

*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교사(Teacher, Pusan National University High School)(jumeesoon@hanmail.net)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교수(Professor, Dept. of Geograph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cwlee@knu.ac.kr)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은 신기술을 토대로 하여 기술자 자신에 의해 창업된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 투자비율과 인력자원의 기술집약도가 높으며 불안정성이 높은 시장 상황에 기존 대기업에 비해 훨씬 탄력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황우익·박종화, 2002). 또한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기술의 전문성과 창조성은 강조하되 기술이외의 다른 요소들은 외부에 의존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필요로 한다.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학습과 혁신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 외 차원에서 혁신활동을 주도하는 혁신주체들과의 네트워크 강화가 우선과제이다(이철우·이중호, 2004). 벤처기업과 혁신주체들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는 무수한 제도적 타협에 의해 형성될 수도 있으며, 특수한 인적 관계에 의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Cooke & Morgan, 1993; 이중호, 1997). 결국 완전한 시장에 의한 거래관계와 완벽한 계층관계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기업간 네트워크는 기업간 관계에 의해 영향을 뿐만 아니라 기업간 관계가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네트워크 구조 자체에 의해서도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Grabher, G., 1993). 그러므로 실세계에 형성되어 있는 다양한 형태의 기업간 네트워크를 밝히는 연구는 어려운 만큼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한편,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벤처기업은 핵심역량을 집중하되 여타 보완적 기능이나 연관된 활동들은 전문기업에게 외부화하여 기업의 경쟁우위를 획득하는 전략을 추구하게 됨으로써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이 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에 필수적인 성장산업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이철우, 2008). 특히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은 서비스업 자체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경쟁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즈니스서비스 부문의 성장이 활발하지 않고 경쟁력이 취약할 경우, 제조업의 제품기획, 디자인, 생산, 마케팅, 유통 등 가치사슬 상의 중요한 기능이 약화되어 제조업 전체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오게 된다(이철우,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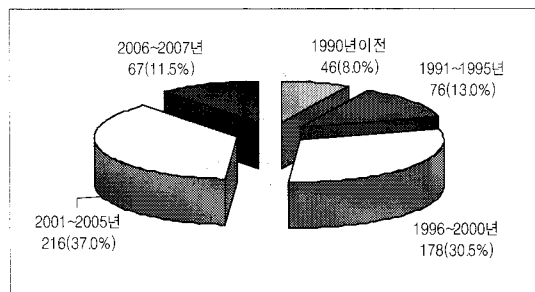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대구지역을 사례로 이들 기업의 현황 및 입지 특성을 밝히고, 벤

처기업의 비즈니스서비스 네트워크 실태 및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된 자료는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의 내부자료인 대구시 벤처기업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자료와 대구·경북 첨단·벤처기업연합회가 발주한 「2007 대구·경북 유망기업, 첨단·벤처기업 DIRECTORY」와 대구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이다. 설문조사는 2007년 10월 15일~29일에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은 대구시에 입지하고 있는 593개 업체이며, 그 중에서 설문조사에 응한 분석대상 업체는 81개로 전체의 13.7%를 차지한다.

2. 대구지역 벤처기업의 현황

대구지역에는 2007년 현재 603개의 벤처기업이 등록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폐업한 기업을 제외한 593개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설립년도, 업종, 자본규모, 기업규모, 사업성격, 성장단계별 특성, 창업자의 학력 및 이전 직업 등을 바탕으로 대구지역 벤처기업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 벤처기업의 설립연도는 1990년 이전에 설립된 기업이 8.0%, 1991~1995년 13.0%, 1996~2000년 30.5%, 2001~2005년 37.0%, 2006~2007년 1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1). 1996년 이후에 설립된 기업이 전체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인 79.0%로 나타나는데,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에서 벤처 창업열기가 가장 활발한 시점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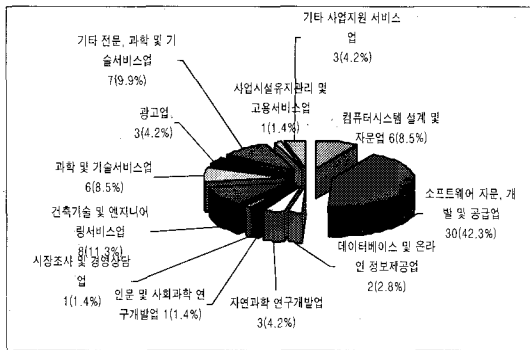


자료: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내부자료

그림 1. 대구지역 벤처기업 설립연도

대구지역 벤처기업의 입지와 비즈니스서비스 네트워크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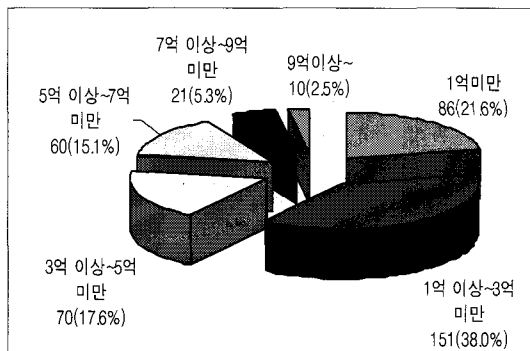
대구지역 벤처기업의 업종별 특징을 보면,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이 4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11.8%),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9.9%),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8.6%),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8.6%)의 순으로 나타난다(그림 2). 이를 통해 대구지역 벤처기업의 업종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자료: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내부자료

그림 2. 대구지역 벤처기업 업종별 구성

이어서 대구지역 벤처기업의 자본금 규모를 살펴보면, 1억 이상~3억 미만이 38.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1억 미만이 21.6%, 3억 이상~5억 미만이 17.6%, 5억 이상~7억 미만이 15.1%, 7억 이상~9억 미만이 5.3%, 9억 이상이 2.5%로 나타난다(그림 3). 이것으로 대구지역 벤처기업은 소자본으로 창업하는 벤처기업의 특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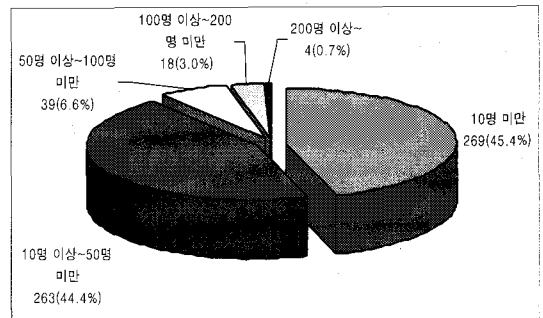


자료: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내부자료

그림 3. 대구지역 벤처기업의 자본금

명백하게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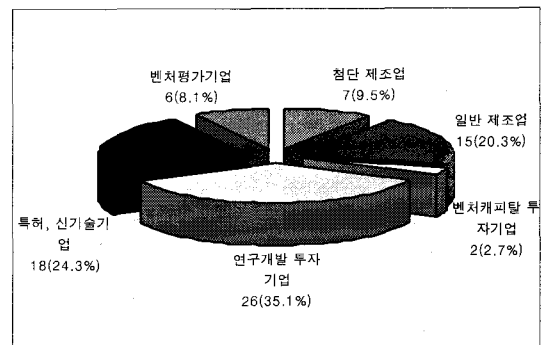
대구지역 벤처기업의 기업규모의 특성을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는 조사기업의 45.4%가 차지하는 종업원 10명 미만의 기업이다. 다음으로 10명 이상~50명 미만의 기업이 44.4%, 50명 이상~100명 미만의 기업이 6.6%, 100명 이상~200명 미만의 기업이 3.0%, 200명 이상의 기업이 0.7%로 나타난다(그림 4). 전체적으로 대구지역의 벤처기업들은 대부분 종업원수 50명 이하의 소규모 기업 중심이라는 특성이 뚜렷하다.



자료: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내부자료

그림 4. 대구지역 벤처기업의 규모

대구지역 벤처기업의 사업 유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35.1%를 차지하는 연구개발투자기업이다. 다음으로 특허·신기술기업(24.3%), 일반제조업(20.3%), 첨단제조업(9.5%), 벤처평가기업(8.1%)의 순이다(그림 5). 대구지역 벤처기업들의 사업 성격은 소프트웨어 분야 중심이라는 업종 특성과 맞물려 연구개발투자기업과 특허·신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무응답 제외)

그림 5. 대구지역 벤처기업 사업유형

표 1. 대구지역 벤처기업의 입지요인

(단위: 개, %)

입지요인	업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연구 및 개발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합계
주로 거래처·고객 접근성		11(10.3)	-	5(7.0)	2(16.7)	18(8.9)
원자재·중간재 수급 용이성		1(0.9)	-	6(8.4)		7(3.5)
동종업종 집중		17(15.9)	-	1(1.4)	-	18(8.9)
저렴한 노동력 확보 용이성		-	-	1(1.4)	-	1(0.5)
전문 서비스 이용 편리성		2(1.9)	2(16.7)	6(8.5)	-	10(5.0)
연구소·대학과의 접근성		13(12.1)	3(25.0)	16(22.5)	3(25.0)	35(17.3)
전문 인력 확보 용이성		5(4.7)	1(8.3)	6(8.5)	1(4.0)	13(6.4)
저렴한 용지 이용		19(17.8)	-	5(7.0)	1(4.0)	25(12.4)
정보획득 용이성		17(15.9)	2(16.7)	9(12.7)	1(4.0)	29(14.5)
관공서의 지리적 접근성		2(1.9)	-	-	-	2(1.0)
교통 및 통신이용 용이성		8(7.5)	1(8.3)	5(7.0)	1(4.0)	15(7.4)
창업자 연고지		3(2.8)	1(8.3)	5(7.0)	1(4.0)	10(5.0)
쾌적한 환경		5(4.7)	2(16.7)	3(4.2)	1(4.0)	11(5.5)
기업 이미지 제고		4(3.7)	-	3(4.2)	1(4.0)	8(4.0)
합계		107(100.0)	12(100.0)	71(100.0)	12(100.0)	202(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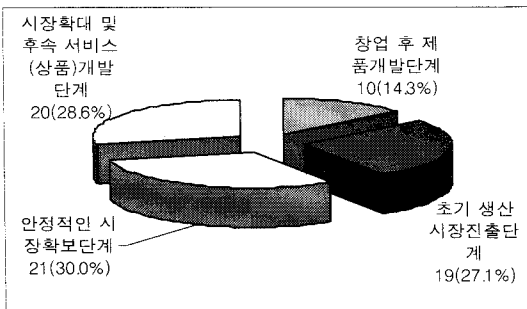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무응답 제외, 중복응답 포함)

기술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벤처기업 사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성장단계별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기업의 30.0%가 안정적인 시장확보단계에 진입하였고, 28.6%가 시장확대 및 후속 서비스(상품)개발 단계, 27.1%가 초기 생산 시장진출단계, 14.3%가 창업 후 제품개발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6). 이로써 대구지역 벤처기업들이 신규로 진출하는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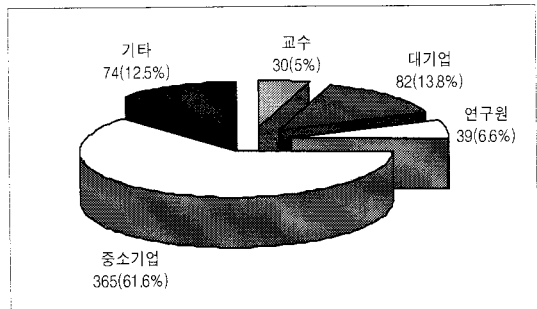
업은 적은 편이고, 이미 설립된 벤처기업들이 다양한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구지역 벤처기업 창업자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51.9%로 가장 많고, 석사 이상의 졸업자도 42.9%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현재의 기업을 설립하기 전에 창업자들이 가졌던 직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창업한 경우가 각각 61.6%, 13.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연구원이나 교수직에 근무하다가 창업한 경우는 각각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무응답 제외)

그림 6. 대구지역 벤처기업 성장단계



자료: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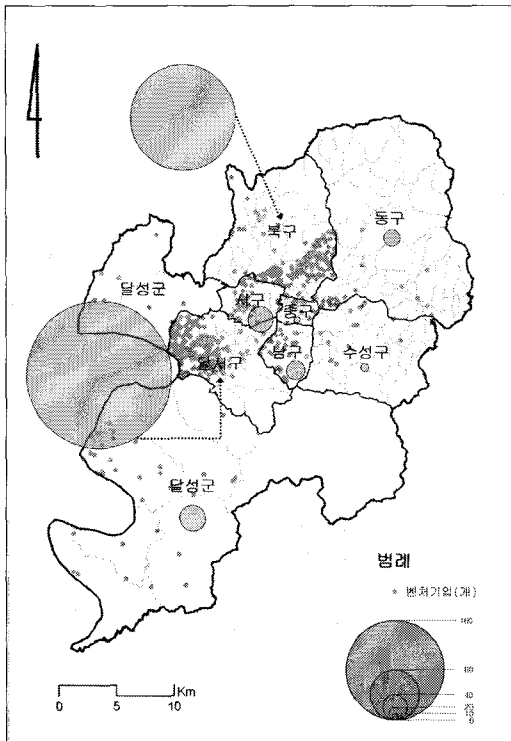
그림 7. 대구지역 벤처기업 창업자 이전 직업

6.6%, 5.4%에 지나지 않는다(그림 7). 대구지역 벤처기업 창업자들은 대부분 대졸이상의 높은 학력에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대구지역 벤처기업의 입지특성

대구지역 벤처기업의 입지특성은 업체의 입지현황, 입지요인, 입주방식 그리고 이전의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입지 현황은 대구·경북첨단·벤처기업연합회의 「2007 대구·경북-유망기업, 첨단·벤처기업」 자료에 기초한다. 대구지역의 벤처기업은 달서구에 237개(41.5%)의 업체로 가장 많이 입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북구(30.0%), 달성군(7.4%), 서구(7.2%), 남구, 동구, 수성구, 중구의 순이다. 달서구에서는 월암동, 갈산동, 대천동, 호림동, 호산동, 파호동, 신당동, 장동, 북구에서는 노원동, 산격동, 검단동, 북현동, 침산동, 달성군에서는 논공읍, 옥포면, 하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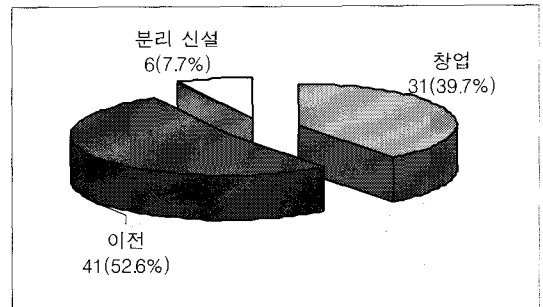
자료: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내부자료

그림 8. 대구지역 벤처기업의 입지현황

면, 현풍면 등에 분산되어 입지하는 반면, 남구에서는 30개 업체 중 29개 업체가 대명동에 집중적으로 입지하고 있다(그림 8).

이들 업체가 입주하게 된 요인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입지요인은 '연구소·대학과의 접근성(17.3%)'이며, 그 다음으로는 '정보획득 용이성(14.5%)'과 '저렴한 용지이용(12.4%)'으로 나타났다. 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연구 및 개발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에서는 '연구소·대학과의 접근성'이 각각 25.0%, 22.5%, 25.0%로 가장 핵심적 요소인 반면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에서는 '저렴한 용지이용'이 17.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동종업종의 집적', '정보획득 용이성'이 각각 15.9%를 차지하여 '연구소·대학과의 접근성'은 12.1%에 지나지 않는다(표 1).

입주업체의 입주방식에 있어서는 타 지역으로부터 이전해온 기업이 41개 업체(52.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창업(39.7%), 분리·이전(7.7%)의 순이다(그림 9). 이들 업체 중 타 지역으로 이전할 의사를 가진 기업은 36개 업체로 전체 기업의 55.7%에 해당하는 44개 업체는 '이전을 고려해 본적이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이전할 의사가 있는 36개 업체의 이전 희망지역으로는 대구광역시(64.5%)와 서울특별시(16.1%)가 80.6%로 압도적이었다. 그 외에 3개의 업체가 경상북도와 경기도로 이전하고자 하였다. 대구광역시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벤처기업이 많이 집적되어 있는 달서구와 북구로 이전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타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한 이유로는 '사업규모 확장'이 65.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무응답 제외)

그림 9. 대구지역 벤처기업의 입주방식

다음으로 ‘쾌적한 업무환경’, ‘거래 업체들의 이전’, ‘고객 및 시장 규모의 축소’가 각각 6.2%를 차지하였다(표 2).

표 2. 대구지역 벤처기업의 이전 희망 지역과 이전 희망 이유 (단위: 개, %)

구 분		업체수
이전 희망 지역	대구광역시	20(64.5)
	경상북도	3(9.7)
	서울특별시	5(16.1)
	경기도	3(9.7)
	합 계	31(100.0)
이전 희망 이유	주변 업체와의 경쟁 심화	1(3.1)
	임대료 인상 압박	1(3.1)
	쾌적한 업무환경	2(6.2)
	거래 업체들의 이전	2(6.2)
	우수 인력 부족	1(3.1)
	기업의 이미지 제고	1(3.1)
	고객 및 시장 규모의 축소	2(6.2)
	사업규모 확장	21(65.6)
	지원서비스의 부족	1(3.1)
	합 계	32(100.0)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무응답 제외)

4. 대구지역 벤처기업의 비즈니스서비스 네트워크 특성

대구지역 벤처기업의 비즈니스서비스 네트워크 특성은 설문조사를 통해 대구지역 벤처기업들이

이용한 비즈니스서비스 업체수, 비즈니스서비스 이용횟수, 주로 이용하는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의 업종별 지역분포, 비즈니스서비스 이용 이유 등의 항목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표 3>은 2007년 1년간 대구지역 벤처기업들이 이용한 비즈니스서비스 업체수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대구지역 벤처기업의 비즈니스서비스 이용업체는 5개 이하가 56.5%(26개 업체)로 가장 많고, 이어 6~10개와 21개 이상 업체 이용이 각각 15.2%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주로 이용하는 비즈니스서비스 업종은 24개 업체(52.2%)가 이용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18개 업체(39.1%)가 이용한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다. 이것으로 대구지역 벤처기업의 70% 이상이 비즈니스서비스 이용업체수가 10개 이하라고 응답하여 비즈니스서비스 이용 업체수는 적은 편이다. 또한 이용하는 부문도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연구 및 개발업과 사업지원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이용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대구지역 벤처기업들의 비즈니스서비스 이용현황을 업종별로 보면,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에서 이용하는 업체가 5개 이하라고 응답이 62.3%로 가장 많고, 11~15개와 21개 이상의 업체를 이용하는 기업이 각각 16.7%로 나타난다. 또 두 번째로 많이 이용하는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서도 이용하는 업체가 5개 이하가 44.4%로 가장 많고, 6~10개 업체를 이용하는 비중이 27.8%, 21개 이상의 업체를 이용하는 비중이 16.7%로 나타난다. 그 외에도 연구 및 개발업 부문

표 3. 대구지역 벤처기업의 비즈니스서비스 이용업체수 (단위: 개, %)

업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연구 및 개발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합 계
1~5개	15(62.5)	1(50.0)	8(44.4)	2(100.0)	26(56.5)
6~10개	1(4.2)	1(50.0)	5(27.8)	-	7(15.2)
11~15개	4(16.7)	-	1(5.6)	-	5(10.9)
16~20개	-	-	1(5.6)	-	1(2.2)
21개 이상	4(16.7)	-	3(16.7)	-	7(15.2)
합 계	24(100.0)	2(100.0)	18(100.0)	2(100.0)	46(100.0)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무응답 제외)

표 4. 대구지역 벤처기업의 비즈니스서비스 이용 횟수

(단위: 개, %)

업종 이용횟수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연구 및 개발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합계
10회이하	3(14.3)	-	2(13.3)	-	5(13.2)
11~20회	3(14.3)	-	6(40.0)	-	9(23.7)
21~30회	1(4.8)	-	-	-	1(2.6)
31~40회	4(19.0)	1(100.0)	2(13.3)	-	7(18.4)
41~50회	5(23.8)	-	3(20.0)	-	8(21.1)
51회이상	5(23.8)	-	2(13.3)	1(100.0)	8(21.1)
합계	21(100.0)	1(100.0)	15(100.0)	1(100.0)	38(100.0)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무응답 제외)

에서는 5개 이하를 이용하는 경우와 6~10개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각각 50%로 나타났고, 사업지원 서비스업 분야에 대해서는 응답한 두 기업 모두 5개 이하의 기업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대구지역 벤처기업들의 비즈니스서비스 이용 횟수를 업종별로 살펴본 것이 <표 4>이다. 대구지역 벤처기업의 비즈니스서비스 이용 횟수는 전체적으로 보면 11~20회가 2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41~50회와 51회 이상이 각각 21.1%, 31~40회가 18.4%로 나타난다.

이를 대구지역 벤처기업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비즈니스서비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은 41~50회와 51회 이상이 각각 2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31~40회가 10.5%로 30회 이상 이용하는 업체가 많다. 그러나 10회 이하와 11~20회 이용하는 업체가 각각 7.9%, 21~30회가 2.6%로 나타나 비즈니스서비스 업체의 이용 빈도가 30회 이하로 낮은 업체도 20% 정도 나타난다. 또한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부

문에 대한 이용횟수를 보면, 11~20회 이용하는 업체가 40.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41~50회 이용하는 업체가 20.0%, 10회 이하, 31~40회, 51회 이상이 각각 13.3%로 나타나, 20회 이하로 이용 빈도가 낮은 기업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 연구 및 개발업 부문에 대해 응답한 1개 기업은 31~40회 이용하고, 사업지원 서비스업 부문에 대해 응답한 1개 기업은 51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로써 대구지역 벤처기업들이 비즈니스서비스를 이용하는 횟수는 비즈니스서비스 업종과 관계없이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부문, 연구 및 개발 부문, 사업 지원 서비스업 부문에 대해서는 이용빈도가 높은 경향이 있고,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부문은 이용빈도가 낮은 경향을 보인다.

대구지역 벤처기업들이 이용하는 비즈니스서비스 사업체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 <표 5>이다. 전체적으로 대구지역 벤처기업이 이용하는 비즈니스 서비스 업체의 분포는 대구지역이 63.6%로 가장

표 5. 대구지역 벤처기업이 이용하는 비즈니스서비스의 업종별 분포

(단위: 개, %)

지역	업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연구 및 개발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사업지원 서비스업	합계
대구		17(56.7)	3(100.0)	14(70.0)	1(50.0)	35(63.6)
서울/수도권		9(30.0)	-	4(20.0)	-	13(23.6)
전라도		1(1.8)	-	-	-	1(1.8)
경상도		3(10.0)	-	2(10.0)	1(50.0)	6(10.9)
합계		30(100.0)	3(100.0)	20(100.0)	2(100.0)	55(100.0)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무응답 제외)

표 6. 대구 지역 벤처기업의 비즈니스서비스 이용 이유

(단위: 개, %)

구 분	대구	서울/수도권	전라도	경상도	합 계
기술 및 지식 부족	29(69.0)	5(38.5)	1(50.0)	5(71.4)	40(62.5)
중·장기적 사업 관점	7(16.7)	5(38.5)	1(50.0)	1(14.3)	14(21.9)
인력부족	1(2.4)	-	-	-	1(1.6)
과거 이용의 만족감	2(4.8)	1(7.7)	-	-	3(4.7)
기업내 의사결정 재확인	-	-	-	1(14.3)	1(1.6)
일시적인 도움	3(7.1)	-	-	-	3(4.7)
기 타	-	2(15.4)	-	-	2(3.1)
합 계	42(100.0)	13(100.0)	2(100.0)	7(100.0)	64(100.0)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무응답 제외)

많고, 다음으로 서울 및 수도권이 23.6%를 차지하였으며, 인근의 경상도 지역은 10.9%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구지역 벤처기업들이 이용하는 비즈니스서비스 업체의 업종별 지역 분포를 보면,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의 경우, 대구지역이 56.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이 30.0%, 경상도가 10.0%를 차지하고 있다. 연구 및 개발업은 3개의 업체 모두가 대구지역에 입지한 비즈니스서비스 업체를 이용하고 있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대구지역이 70.0%로 과반수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서울·수도권지역이 20.0%, 경상도가 10.0%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대구지역과 경상도가 각각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대구지역 벤처기업들은 주로 대구 지역 내에 입지한 비즈니스서비스 업체를 주로 이용하며, 서울과 수도권에 입지한 비즈니스서비스업체 이용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같은 대구지역 벤처기업들이 이용하는 비즈니스서비스 업체의 지역적 분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비즈니스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 <표 6>이다. 대구 지역 벤처기업들이 비즈니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기술 및 지식 부족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62.5%(40개 업체)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21.9%의 업체가 사업운영의 종합적이고 중·장기적 관점을 갖기 위해 비즈니스서비스 업체를 이용한다고 응

답하였으며, 각각 4.7%의 업체가 과거 이용에 대한 만족감과 일시적인 도움 요청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특정 지역에 상관없이 기술 및 지식 부족과 중·장기적 사업관점에서 비즈니스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중 대구지역에 입지한 비즈니스서비스업체를 이용하는 이유는 비교적 다양한데, 일시적인 도움의 필요성이나 과거이용의 만족감,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대구지역 벤처기업들이 바라는 개선 사항을 살펴보면(표 7), 금융 지원체계 확립이 17.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전문인력 양성(16.8%), 연구 및 기술 개발 지원(14.4%), 각 종 규제 완화(9.9%), 세제 지원(8.9%),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지원(6.9%),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5.0%)의 순이다. 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과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전문인력 양성이 각각 18.2%, 2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금융지원 체계정립이 각각 17.3%, 16.7%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연구 및 개발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금융지원체계 정립이 각각 33.3%, 1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연구 및 개발업은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이 25.0%로 두 번째로 높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전문인력 양성이 13.2%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으로 대구지역 벤처기업들이 비즈니스서비스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비즈니스서비스업종별로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대구지역 벤처기업의 개선사항

(단위: 개, %)

개선사항	업종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운영관련업	연구 및 개발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합계
금융지원체계 정립		19(17.3)	4(33.3)	10(14.7)	2(16.7)	35(17.3)
세제 지원		9(8.2)	-	8(11.8)	1(8.3)	18(8.9)
규제 완화		12(10.9)	-	7(10.3)	1(8.3)	20(9.9)
전문인력양성		20(18.2)	2(16.7)	9(13.2)	3(25.0)	34(16.8)
계약 및 입찰제도 합리화		2(1.8)	-	-	-	2(1.0)
비즈니스서비스사업 육성		6(5.5)	-	3(4.4)	-	9(4.5)
공공기관의 구매·조달촉진		1(0.9)	1(8.3)	2(2.9)	-	4(2.0)
지적재산권제도의 확립		-	-	1(1.5)	1(8.3)	2(1.0)
생산성향상시선투자지원		5(4.5)	1(8.3)	8(11.8)	-	14(6.9)
우수 외국기업 유치		-	-	1(1.5)	-	1(0.5)
첨단 업무복합단지 조성		3(2.7)	-	2(2.9)	-	5(2.5)
연구 및 기술 개발 지원		18(16.4)	3(25.0)	6(8.8)	2(16.7)	29(14.4)
산업지원전담조직		3(2.7)	-	2(2.9)	-	5(2.5)
수출마케팅 지원		6(5.5)	-	1(1.5)	-	7(3.5)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3(2.7)	1(8.3)	5(7.4)	1(8.3)	10(5.0)
입지 지원		2(1.8)	-	3(4.4)	1(8.3)	6(3.0)
합계		110(100.0)	12(100.0)	68(100.0)	12(100.0)	202(100.0)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무응답 제외, 중복응답 포함)

4. 맺음말

세계적·지역적 경제활동은 다양하게 얽혀있는 네트워크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또한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지역의 혁신활동의 경제적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는 가운데,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변화를 도모하는 사례가 종종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핵심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화된 전문기능들이 비즈니스서비스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이들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이 서비스산업 성장뿐만 아니라 제조업 활동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특히 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에 비즈니스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과의 네트워크 강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구지역 벤처기업을 사례

로 이들 기업의 현황 및 입지 특성을 밝히고, 대구지역 벤처기업의 비즈니스서비스 네트워크 실태 및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한 벤처생태계 형성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대구지역 벤처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설립시기는 우리나라 벤처기업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설립된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업종면에서는 소프트웨어 분야 관련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어 다양한 벤처기업으로 분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자본규모면에서는 5억 미만의 소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창업하고, 50명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소규모 기업이 중심을 이룬다. 사업 성격은 소프트웨어 분야 중심의 업종 특성과 맞물려 연구개발 투자와 특허·신기술 분야가 중심을 이루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벤처기업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장단계별로는 신규 진출기업보다는 이미 설립한 기업들이 다양한 성장을 모색하고

있어,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지역적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창업자들의 학력은 주로 대졸이상의 고학력자들이 많고, 기업에 근무하던 경력자들이 벤처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어 대구지역 벤처기업의 입지특성을 보면, 대구지역 벤처기업들은 달성구와 북구의 일부 지역에 집중하여 입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지역에 집중적인 입지요인은 업종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연구·대학과의 접근성, 정보 획득 용이성, 저렴한 용지 이용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의 입주 방식은 타지역에서 이전하여 입주하거나 현재의 입지에서 창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현재의 입지에서 타지역으로 이전의사가 있는 기업보다 이전의 의사가 없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타지역에서 이전해온 기업이 많은 것과 상관있는 현상으로 보인다. 한편, 이전할 의사를 보인 기업은 대구시와 서울시로의 이전을 희망하고 있으며, 사업규모 확장 때문에 이전하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고객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벤처기업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대구지역 벤처기업의 비즈니스서비스업 네트워크 특성을 보면, 대구지역 벤처기업들이 이용하는 비즈니스서비스 업체수는 70% 이상이 10개 이하로 적은 편이며, 이용하는 부문은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부문에 집중되어 있고, 연구 및 개발업과 사업지원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이용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대구지역 벤처기업들이 비즈니스서비스를 이용하는 횟수는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부문, 연구 및 개발업 부문, 사업지원 서비스업 부문에 대해서는 이용 빈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부문은 이용 빈도가 낮은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대구지역 벤처기업들이 이용하는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비즈니스서비스 업종과 관계없이 대구지역이 가장 많고 이어 서울 및 수도권, 인근의 경상도 지역 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분포경향에 따른 비즈니스서비스 이용 이유는 기술 및 지식 부족이 가장 많고, 이어 사업

운영의 종합적이고 중·장기적 관심, 과거 이용에 대한 만족감, 일시적인 도움 요청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요약하면, 소프트웨어 분야의 소기업 위주로 이루어진 대구지역 벤처기업들은 연구·대학과의 접근성, 정보획득 용이, 저렴한 용지 등의 이유로 일부지역에 집중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현재의 입지에서 창업하였거나 이미 이전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타지역으로의 이전을 고려하지 않는 기업이 많고, 다양한 성장을 모색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경향을 보인다.

이와같은 입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대구지역 벤처기업들이 벤처사업 분야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서비스 네트워크에 있어 개선해야 할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 대구지역 벤처기업들의 사업 분야가 일부에 제한되어 있어 업종의 분화가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신규로 벤처사업에 진출하는 기업이 적은 편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분야·규모로 벤처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사업분위기 조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대구지역 벤처기업들이 비즈니스서비스 이용업체 수는 적은편이며, 또한 적은 업체에 이용이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비즈니스 서비스 기업들과의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구지역 벤처기업들의 벤처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벤처기업과 비즈니스서비스 기업 간 네트워크 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지역 벤처기업의 자생과 번성을 위해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회수시장으로 구성된 벤처생태계의 내적 구성요소들간의 정보공개와 상호 신뢰 구축, 협력 네트워크의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벤처기업의 왕성한 창업과 경영활동을 통해 투자자들이 건설할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벤처기업-벤처캐피탈 등의 벤처생태계의 내적 주체들간에 정보를 공개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여,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에 힘써야한다. 또 위험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부족한 부분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조화로운 벤처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들의 내적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물리적·제도적·문화적 환경조성

이 뒤따라야 한다. 물리적 환경 강화를 위해 고급 기술인력에의 접근이 용이하고 광범위한 각종 전문활동들과 긴밀한 연계가 원활하도록 해야 한다. 또, 제도적 환경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연구기관, 상공회의소·벤처기업협회와 같은 민간 매개기관, 지방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 테크노파크·법률·회계·경영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서비스 기업 등 각종의 제도적 주체들의 활동이 지역 내 벤처생태계 내에서 건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문화적 환경 강화를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하는 벤처기업가들의 모험정신, 실질과 효율을 중시하는 사고, 즉 기업가 정신의 배양이 필요하며, 벤처생태계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간 상호 작용적인 공식적·비공식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력분위기를 성숙시키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문헌

김목한·박행웅·오은주 역, 2003,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 한울, 서울(Castells.M., 2000,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2nd(ed.), Blackwell, Oxford)
대구·경북첨단벤처기업 연합회·대구지방노동청 대구종합 고용지원 센터, 2007, 대구·경북 유망기업-첨단·벤처기업디렉토리.
대구테크로파크·대구·경북첨단벤처기업 연합회, 2005, 대구 첨단 벤처 가이드.
박종화·황우익, 2002, 벤처기업의 대도시 및 집적지향성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37(1), 57-74.
오영택, 2002, 우리나라 벤처의 생태환경 분석과 발전방향, 벤처경영연구, 5(2), 3-35.
이종호, 1997, 창원 신산업지구 발달과 네트워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철우, 2003, 창원기계산업지구의 지역혁신체제 실태, 지리학논구, 23, 327-344.
이철우·이종호, 2004, 지방대도시 벤처생태계의 제도적 및 문화적 환경: 대구지역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7(1), 1-27.
이철우, 2008, 신산업과 생산자서비스의 공간, 인문지리학개론, 한울, 서울.
최종수·김성은, 2001,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벤처기업의 지방화 방안, 대한경영학회지, 30, 435-459.
황우익·박종화, 2002, 벤처기업의 집적지 입지요인과 기술혁신 성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37(7), 85-101.

Cooke.P. and Morgan.K., 1993, The network paradigm: New departures on corporate and regional development,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11, 543-564.

Grabher.G., 1993, Rediscovering the social in the economics of interfirm relations, in Grabher. G.,(ed.), Grabher.G., *The embeded firm-on the socioeconomics of industrial networks*, Routledge, London.

•교신 : 이철우, 702-701,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번지,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이메일: cwlee@knu.ac.kr, 전화: 053-950-5234, 팩스: 053-950-6227)
Correspondence : Lee, Chulwoo, Department of Geograph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370 Sangyeok-dong, Buk-gu, Daegu, 702-701, Korea(e-mail: cwlee@knu.ac.kr, phone: +82-53-950-5234, Fax: +82-53-950-6227)

(접수: 2009.10.12, 수정: 2009.11.22, 채택: 2009.12.11)